잘 나가는 수입차, 지방 영토확장 '가속 페달'

아우디 호남 중소도시 첫 순천·군산에 매장

전남 올 상반기 판매 작년보다 48%나 늘어

수입자동차 브랜드 아우디가 순천과 군산에 전시장을 연다. 호남권에서 광주와 전주를 제외하고 수입자동차 브랜드가 전시장을 여는 곳은 순천과 군산이 최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로 매장을 냈던 수입차 업계가 치열한 경쟁 탓에 지방 중소도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오는 12일께 순천 왕지동에 차량 4대 전시 규모의 소규모 전시장을 개장한다. BMW가 순천에서 정비센터를 운영중이지만 수입차 브랜드가 정식 전시장을 여는 것은 아우디가 처음이다.

인구 27만명의 순천이 광주에 이어 지역 두 번째 아우디 전시장으로 선정된 것은 인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우디 관계자는 "여수나 광양지역은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 중소도시이지만 판매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차 시장은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키웠지만 앞으로는 중소도시에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수입차 판매량은 수치는 적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2009년 576대이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2012년 1609대로 3배 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48%나 증가했다. 아우디가 인기 수입차 브랜드라는 점도 한몫했다. 올해 전남지역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에서 아우디는 BMW(27.87%), 폴크스바겐(16.11%)에 이어 12.68%로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아우디는 이달 순천과 군산 외에도 춘천, 진주, 포항 등 전국 8개 중소도시에 새 전시장을 낸다. 많은 소비자가 아우디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세일즈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구매력 높은 중소도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지방 전시장 개장에 적극적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달 말 강원도 원주에, 폭스바겐코리아는 안양시에 각각 새 전시장을 열었다. 이에 따라 순천은 아우디 외 다른 브랜드가 입성할 가능성도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알짜 부자가 많은 지방 도시로 딜러망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소규모 전시장을 바탕으로 중소도시 공략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민간주도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위원장 김기문 중기회장

국세청은 8일 국세 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던 국세행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세행정 쇄신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이고 세정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금지 등을 담은 단기 쇄신 방안의 강력한 실천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큰 만큼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산하 4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국세행정의 중·장기 개혁 방안을 자문·권고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세계철강협 회장 선출

제37대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선출됐다.

세계철강협회는 6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47회 연례총회를 열고, 정 회장을 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포스코가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러시아 세베르스탈의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2014년 10월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정 회장은 2009년부터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부회장으로 올라섰다. 지난 3년간 협회 활동을 통해 세계 철강산업의 현안 해결과 선진-신흥 철강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이번 회장 선임으로 세계 철강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했다.

1967년 설립된 세계철강협회는 170개 철강사, 관련 협회,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가입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내 일자리 어디 없나" 호남지역사업평가원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3 호남권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한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기업채용공고란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美 셧다운 2주째…채무불이행 우려 고조

2011년 위기 재발 조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이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놓고 지난 2011년 8월 디폴트 직전에 협상이 타결된 '2011년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폭락했던 미국 주가가 회복하는데 반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1개월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7일(현지시간) 0.1572%로 정부 업무정지 이후 13.69bp(0.1369%포인트) 급등,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2.6265%로 같은 기간 1.65bp 상승에 그쳤다.

지난 3일에는 2.6046%로 정부 업무정지 이전보다 오히려 0.54bp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된 반면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에도 단기간의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2002.76 (+8.34)	▲ 528.83 (+0.39)	2.84% (0.00)	▲ 1073.70원 (+2.20)

기아차는 8일 올 뉴 쏘울만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투톤 루프 3종'과 '레드존' 커스터마이징 사양을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화이트에 레드 더하니 개성이 톡톡

기아차 올 뉴 쏘울 '투톤 루프' 3종 등 사양 공개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는 '올 뉴 쏘울'의 출시를 앞두고, 개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투톤 루프 3종'과 '레드존' 커스터마이징 사양을 공개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투톤 루프 3종'은 ▲화이트와 레드 ▲블루와 화이트 ▲바닐라와 블랙 색상의 조합으로 이뤄져 쏘울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국내 최초로 도장 방식을 채택, 제품의 스타일과 품질 완성도를 모두 높였다.

이와 함께 날렵하고 강인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에 맞춰 '레드존' 커스터마이징 사양도 선보였다. '레드존'은 투톤 루프 3종 중 화이트와 레드 사양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의 ▲루프와 아웃사이드 미러 ▲프런트·사이드·리어 스커트 ▲라디에이터 그릴에 레드 컬러를 입혀 개성을 강조하고, 같은 색의 리어스포일러를 차량에 적용해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올 뉴 쏘울만의 느낌을 잘 보여준다.

기아차는 이달 출시 예정인 올 뉴 쏘울의 외관을 10월 초에 국내에 공개했으며 올 뉴 쏘울은 풍부한 볼륨을 가진 범퍼부, 랩어라운드 글라스 등 기존 쏘울이 갖고 있는 개성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한층 균형 잡힌 자세를 지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건설수주액 13개월째 감소

8월까지 51조8604억원…작년보다 24%나 줄어

국내 건설수주액 감소세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5조9679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 줄었다.

공공 수주는 2조4326억원으로 작년보다 2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수주는 3조 5353억원으로 15.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수주 가운데 토목 분야 수주액은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 등 치산치수, 영산강 성산1공구 토목공사 등 농림수산, 서울제물포터널공사 등 도로교량 부문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47.1% 뛰어올랐다.

공공건축은 경찰대 지방 이전 신축공사 등 학교·병원·관공서, 농협중앙회 밀양물류센터 신축공사 등 공장·창고 등의 수주 물량 증가로 11.4% 늘었다.

민간 수주에서는 토목이 철도궤도(용인경전철 건설사업 토목공사 2공구), 상하수도(울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발전송전·배전(군장에너지 GE3 프로젝트) 등의 수주 호조로 25.7% 증가했으나, 건축은 주택재건축과 공장·창고 등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부진이 계속되며 20.3% 감소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국내 건설 누계 수주액은 51조8604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대비 24.2%(16조 577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12.0%(22조4000억원→19조7000억원), 민간부문은 30.2%(46조원→32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연합뉴스